



고령자 뇌졸중 질환 동향

김유미 연구원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 진료인원 중 77.8%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뇌졸중으로 진료 받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기준 41만 9천 명으로 2011년 대비 6.4% 증가한 반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1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26.0% 증가함. 뇌졸중은 평소 생활습관을 통한 관리와 조기 치료가 중요하며 재난적인 노후 의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적극 활용해볼 수 있음

■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0%를 넘어선 이후, 10여 년 만에 40%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건강보험 적용 노인 인구 비중은 2010년 10.2%에서 2016년 12.7%로 증가하였으며, 노인 진료비는 14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증가하여 전체 진료비의 38.7%를 차지함
 -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94만 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3배 이상 높음¹⁾
-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노인의 복합 만성질환자도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²⁾
 - 1인당 노인 진료비 지출은 알츠하이머형 치매³⁾가 1,263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⁴⁾ 956만 원, 무릎관절증 684만 원 순으로 나타남⁵⁾

1)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2017. 2. 28), 「16년 건강보험 진료비 64조 5,768억 원...전년보다 11.4% 증가」

2) 오영희(2015. 5), 「노인의 건강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원

3) 치매는 알츠하이머병뿐만 아니라 혈관 치매, 루이체 치매, 파킨슨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회복 가능한 원인(약물, 술, 영양 결핍, 우울증, 정상압 수두증 등)에 의한 치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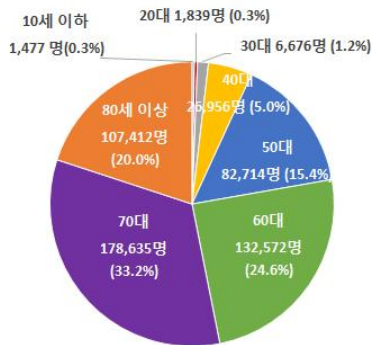
4) 뇌졸중(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5)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2017. 4. 3), 「뇌졸중」 환자의 5명 중 4명은 60세 이상

■ 특히, 뇌졸중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하며 진료인원 중 77.8%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일수록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뇌졸중 진료인원은 70대, 60대, 80세 이상 순으로 많았으며, 연령대별 인구비율을 고려하면 70대에서 진료인원이 급격히 증가함
 - 고령일수록 혈관 자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 모양 등 퇴행성변화가 찾아오면서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심장질환 등의 발생률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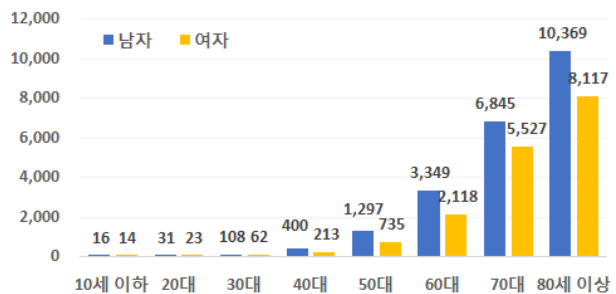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별 뇌졸중 진료인원



자료: 통계청 건강보험통계

〈그림 2〉 성별, 연령대별 뇌졸중 진료인원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자료: 통계청 건강보험통계

■ 뇌졸중으로 진료 받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기준 41만 9천 명으로 2011년 대비 6.4% 증가한 반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1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26.0% 증가함

-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77%를 차지하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입원 992만 원, 약국 76만 원, 외래 17만 원 순으로 나타남
- 뇌졸중 형태별로 살펴보면 뇌경색으로 인해 진료 받은 인원은 31만 2천 명으로 뇌출혈 진료인원인 4만 명보다 7.9배 많았으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뇌출혈이 645만 원으로 뇌경색 276만 원보다 2.4배 높았음

■ 만성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은 평소 생활습관을 통한 관리와 조기 치료가 중요하며⁶⁾, 생애전환기에 접어든 중년기때부터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난적인 노후 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6) 만성질환 유병자는 비질환자에 비해 건강생활(금연, 저위험 음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에너지 적정섭취)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질병관리본부(2015), 만성질환 Factbook)

- 뇌졸중은 연령, 유전적 요인 등 자연적인 위험요소 외에 운동, 식이요법 등 적극적인 예방·관리로 위험요소의 조절이 가능하며,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뇌졸중과 같은 중대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에 경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음 **kiri**